

發 刊 辭

韓國國際法學界의 泰斗이시며 韓國法學界의 큰 스승이신 碩岩 裴載湜博士께서 今年 8月 31日로 停年을 맞이하여, 40년 가까운 歲月을 몸담고 계시던 서울大學校 法科大學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裴博士께서는 1958년 서울大學校 法科大學의 專任講師에 就任하신 이래, 國際人權法관련 論文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國際法關係의 論著들을 통해 韓國國際法の 發展에 크게 기여하시었으며, 아울러 精力的인 活動으로 낙후되었던 法學教育의 水準을 높이는 데 지대한 역할을 담당하셨습니다. 學內的으로는 法科大學의 學長 및 서울大學校法學研究所長 등 여러 補職을 맡으시면서 法學教育制度의 改善과 法學教育方法論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셨으며, 學外的으로는 國內外的 國際法關聯 學會와 세미나에 참여하시어 우리 나라의 國際法發展에 크게 공헌을 하셨습니다. 또한 현재에도 韓日포럼 韓國側代表를 맡고 계신 것을 비롯하여 法務部·外務部·國防部·教育部 등의 政策立案에도 깊이 관여하시어 學問의 所信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法學界를 위하여 화려한 業績을 남기신 裴博士님의 停年을 맞이하여 서울大學校法學研究所에서는 지난 세월 동안 法學發展을 위하여 수고하신 博士님의 勞苦에 조금이나마 報答하는 뜻에서, 法學 第35卷 2號를 博士님의 停年紀念號로 發刊하여 奉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停年紀念號의 發刊을 위하여 우리 法學研究所의 常任研究員들께서 法學 各分野의 論文 9편과 翻譯·資料 등 다양한 研究成果物들을 특별히 寄稿해 주셔서, 이번호 法學誌의 내용이 더욱 알차고 풍부한 것이 되었습니다. 玉稿를 건네 주신 여러 教授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法學」 第35卷 2號의 편집과 교정에 수고가 많았던 음선필조교와 김종보조교의 수고에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1994년 10월 31일

서울大學校 法學研究所長
權 寧 星